

이소영의 '우리 지역, 우리 식물'



구례, 우리 각자의 산수유

5년 전 우리나라에서 열린 국제 학회에서 남미 식물 연구자를 만났다. 그는 학회에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자신의 연구 대상인 식물을 소개했고, 그 식물 중에는 우리가 흔히 재배하는 몬스테라도 있었다. 그가 내 기억에 유난히 오래 남는 것은 몬스테라를 가리켜 '내 집만 한 거대한 크기의 식물'이라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동료들은 그의 말에 놀랐다. 그저 온실에서 보거나 문헌을 통해 아는 정보로 몬스테라 크기를 가늠할 뿐 자생지에서의 모습을 실제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몬스테라는 화분에 심어지는 크기 2미터가 넘지 않는 식물이다.

하나의 식물을 두고도 우리는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다른 풍경과 이미지를 떠올린다.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떠올릴 때, 누군가는 흰 꽃을, 또 누군가는 분홍색 꽃을 떠올리듯 말이다. 모두가 꽃을 떠올릴 때 무궁화 열매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식물 한 종이 아니라 특정 장소의 특정 개체를 공유하더라도 각자 다른 풍경을 떠올리기도 한다.

이런 봄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는 산수유가 있다. 나는 삼 년에 한 번은 산수유가 피어나는 삼월 구례에 간다. 구례 산동면에는 산수유 군락지가 있다. 산수유를 처음 제대로 본 것은 대학교 때 구례로 견학을 가서였

다. 그전까지 산수유는 내게 그저 공원의 정원수 중 가을에 풍성한 빨간 열매를 맺는 약용식물이었다. 그런데 구례에서 본 산수유는 가지마다 노란 꽃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다. 내가 구례를 찾은 것은 산수유 축제가 열리는 초봄이었다.

산수유 꽃에게는 황량한 겨울을 깨우는 에너지가 있었다. 보편적인 꽃은 꽃잎이 수술과 암술을 감싸는 모습이지만, 산수유 꽃은 발화하고 터뜨리는 듯한 형태를 띤다. 그 후로도 나는 종종 구례를 찾았다.

어느 날 조경 일을 하는 친구와 대화하던 중 산수유 이야기가 나왔다. 그도 구례의 산수유를 자주 찾는다고 했다. 그렇게 우리는 산수유로 꽤 긴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할수록 서로가 떠올리는 구례 풍경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마을을, 나는 따뜻한 봄 햇살 속 노란 꽃 마을을 묘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구례, 같은 산수유나무를 보고도 방문 시기가 달랐던 탓에 서로 다른 풍경을 마주한 것이다. 우리가 본 식물은 같은 것이지만 또 다른 것이었다.

나는 가을에 구례에 간 적이 없다. 친구의 가을 풍경 예찬을 듣다가 문득 왜 나는 늘 봄에만 산수유를 찾았던 것인지 후회해 됐다. 왜 가을에는 구례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걸까? 초봄에는 아직 식물이 생동하는 초

반이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가을에는 봄과 여름 동안 관찰한 식물들을 그리느라 바빠 구례에 가지 못했던 것 같다. 사실 이것은 핑계일지도 모른다.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봄 풍경을 마다하고 가을 풍경을 굳이 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운전을 할 때에도 새로운 길보다 늘 가던 익숙한 길로 가고, 새로운 책과 영화를 보는 것보다 좋아하는 것을 다시 보는 것을 즐긴다. 가을 산수유 풍경을 보는 도전을 하기보다 좋아하는 봄 풍경을 안전하게 즐기기를 선택했던 것이다.

사실 산수유는 가을에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다. 산수유와 헷갈리기 쉬운 식물로 생강나무가 있는데, 둘은 꽃의 형태가 비슷하다. 그래서 꽃이 피는 봄에는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을이 되면 둘은 전혀 다른 형태를 띤다. 생강나무는 완전한 구형의 까만 열매가 달리지만 산수유는 타원형의 빨간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가을에는 식별이 쉽다. 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가을에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올해가 구례의 산수유를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고, 단 한 번만 그곳에 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계절을 선택할까? 그렇게 나는 올해 가을 구례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식물세밀화>

의료칼럼

다낭성 난소 증후군



김동규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기도 한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길까? 발생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비만, 스트레스, 무리한 다이어트, 불규칙한 생활 습관)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임기 여성에서 6~10% 정도의 발생률을 보이며 혈액 소견, 초음파 소견과 함께 임상적 증상이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혈액 소견의 경우 고안드로겐 혈증을 가장 중요한 진단 기준으로 삼는다. 또 초음파 소견(2003년 기준)에 따르면, 적어도 한쪽 난소에서 2~9mm 크기의 난포가 12개 이상 있거나(진주 목걸이 모양) 혹은 난소 부피가 10ml를 초과해야 한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 무배란성을 동반하는 희발월경은 주기만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월경의 양도 점차 줄어 결국 이차성 무월경(세 번의 월경 주기 동안 또는 6개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을 때)으로 이어져 난임이 되기도 한다. 실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75%가 난임으로 보고된다. 약 30%에서는 부정 출혈을 보이는 기능성 자궁 출혈을 호소한다. 또 증가한 남성호르몬(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해 다모증이 생기기도 한다. 우리나라 여성, 특히 청소년기에는 비만, 다모증을 동반하지 않는 때도 오히려 약 10% 정도는 여드름, 남성형 탈모증

을 보인다.

자궁내막 증식증, 자궁내막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방암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 또 대사증후군(심혈관계질환,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정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쳐 우울, 기분 변화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과체중, 비만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호르몬 이상과 연관되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일으킨다. 가장 첫 번째 치료는 체중 감량이다. 체중이 줄면 월경 주기와 배란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6개월 동안 5~7% 정도의 체중 감량만 해도 약 75%에서 배란이 다시 시작되고 여드름, 다모증도 상당히 호전된다. 칼로리 섭취 제한,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식습관 및 규칙적인 운동으로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하며 대사증후군에 의한 합병증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 경구용 피임약은 규칙적인 월경 주기를 유도하며, 자궁내막 과증식을 억제해 자궁내막 증식증이나 자궁내막암 예방 효과가 있으며, 피임이 필요한 경우와 여드름 치료에도 도움을 준다. 난임 시술, 배란 유도제의 사용으로 배란 유도 및 임신에 성공할 수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복강경을 통한 난소의 레이저기화술, 전기소작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고

20대 대선과 민주당, 그리고 '동학 개미'



서금석 조선대학교 강사

입은 정치인들이 가장 크게 짊어져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두어 달 뒤에는 지자체 선거가 치러지고, 2년 후에는 총선으로 이어진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이 동학 개미들과 함께했다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 선거 전과 그 후에 그들이 보여줬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2년 전에 총선에서 180석을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대한 대답은 터무니없었다. 대선 패배를 반드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만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하나의 발미였을 뿐이다.

민주당은 오만했고 자만했다. 재작년 총선 승리 후 당 대표가 "민주당 정권이 20년 집권해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를 웃돌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패배했다. 왜 그랬을까? 너무도 단순한 '정권 교체' 구호에 대해, 거대 여당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대안을 보여주지 못했다. 설령 그 대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제대로 국민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불과 1년 전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이를 보여주었다.

기득권이 무섭고 놀랍다. 대선 정국 내내 민주당도 기득권 세력이라는 '뇌피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어찌 보면, 더 보수적이다 싶을 정도였다. 표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방어막을 단단히 쳤다. 복당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인색했는지를 돌아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일찍부터 개방 전략을 선택

한 상대 당이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과 사뭇 달랐다. '정권교체 깃발 아래 모두 모이자'가 먹힌 것이다. 뒤늦게 복당 기간을 주고 신청을 받는 여당의 모습에서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막바지에 나온 '통합 정부'이나 '정치 교체' 운운도 때를 한참 놓쳤다.

정권의 유튜브TV 구독자는 30만 명이 고작이다. 조희 전수는 말할 나위도 없다. 유명 개인 유튜브에 비해서도 구독자가 턱없이 적다. 자기 자랑도 못하는 판에 어떻게 국민을 설득시켜 국정을 운영했을까 의아스럽다. 언론만 탓했지, 어떻게 국정을 홍보할 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대안은 2년 전 180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복기하면 될 것이다.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발로 뛰었다. 시민들을 만나고 또 만났다. 이야기를 듣고 또 듣고, 더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누가 180석을 만들어줬는지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광장에 천막 당사라도 쳐야 한다. 따뜻하게 보낼 일이 아니다. 국민 제안제와 같은 기회를 만들어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호남권의 높은 참여율과 지지율을 지역 정치인들의 자랑이나 노고로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특히 수도권 시민들에게 왜 등을 돌렸는지를 찾아야 하며 물어야 한다. 자신들의 시선이 아니라, 국민의 시선, 시민들의 눈높이를 새겨야 한다. 동학 개미는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한 방편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싶었던 사람들이었다.

社說

'스텔스 오미크론' 폭증 거리두기 완화 신증을

오미크론보다 감염 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리면서 광주·전남 지역 하루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도 증가하는 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어제 하루 동안 광주에서 1만 1542명, 전남에서 1만 6149명 등 2만 7691명이 신규 확진됐다. 전남에도 광주·전남에서는 2만 2627명이 확진돼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날 광주 지역 신규 확진자 가운데 98.3%인 1만993명은 일상생활에서 감염된 사례였다.

특히 광주에선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른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광주 지역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은 2월 1주차 0.9%에서 3주차 13.3%, 3월 1주차 34.4%, 3월 2주차에는 45.6%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3월 2주차 기준 26.3%였다. 일반적으로

검출률이 50%를 넘기면 우세종, 90% 이상이면 지배종으로 불린다. 광주는 3월 3주차에 접어들면서 검출률 50%를 넘어서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이달 들어 신규 확진자가 13만 1956명에 이르고 코로나19 사망자도 79명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상황이 위중해도 정부가 다음 주부터 인원 제한 폐지 등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절정에 이르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점을 지나게 될 것이라는 게 이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수 없는 폭증세와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 또한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노력만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인 만큼 시민들도 그 어느 때 보다 경각심을 갖고 생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화장대란' 마지막 길도 줄어야 하나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면서 장례식이 4일장을 넘어 7일장까지 길어지고 있다. 화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하면서 유족들이 화장터를 구하지 못해 장례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 지역의 한 해 사망자는 지난 2020년 기준 7785명으로, 화장률(92.3%)을 고려하면 7100명이 넘는 사망자 가족을 이해 화장장을 찾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환절기를 맞아 고령 사망자까지 크게 늘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 지역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한 지역민들은 대다수가 4일장은 기본이고 길게는 6·7일장까지 치르고 있다. 그동안 일반적인 장례였던 3일장은 꿈도 꾸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례 일정이 이처럼 길어지는 것은 화장터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광주도시공사 산하 영락공원 한 곳에서 하루 최대 40명만 화장이 가능하다.

더욱이 화장 예약은 오는 18일까지 가득 찬 상태다. 화장터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일부 시민들은 목포 등 인근 화장터까지 찾아가고 있지만 마저도 예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화장터 부족은 유족들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례식장 사용 일수 증가에 따른 비용은 물론이고 타 지역의 화장터를 이용할 경우 최대 10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광주시는 지난 8일 화장수 가동 시간 연장과 시설 가동을 확대 방침을 밝혔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개선 방안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그나마 광주시가 어제부터 영락공원의 일 평균 화장 건수를 50건으로 늘리기로 해 다소 승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화장 수요를 감안하면 이러한 대책은 임시변통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가족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유족들이 화장을 위해 며칠씩 줄지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화장시설 증설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1265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단테의 대작 '신곡'은 중세 최고의 철학 서사시다. 신곡에는 지옥부터 연옥, 천국에 이르는 단테의 여행을 담았는데, 그중에서도 지옥의 묘사가 압권이었다. 지옥은 총 9층으로 구성돼 있는데, 1층을 제외하고 각각 이름이 있다. 색욕, 폭식, 탐욕, 분노, 폭력, 시기, 이단, 배신 등인데, 이 가운데 사기 지옥은 모두 10겹으로 구성돼 있다.

10겹 가운데 5겹에 부패 정치인이 간헐했는데, 그들의 죄목은 횡령, 뇌물수수, 매관매직이었다. 이들은 뜨겁고 끈적끈적한 액형(색)이 흘러내리는 지옥에 갇혀 있다. 사무원-서기관 승진에 각각 몇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다. 거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수사기관의 추적은 피했지만, 입소문까지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능력 없는 인사들이 뒷자리를 차지하거나 아예 승진을 포기한 채 대중 업무를 보는 풍토가 만연하면 행정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진 인사에서 돈을 받은 현직 단체장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매관매직

이러한 매관매직이 전남 일부 시군에 여전히 유행하는 것 같다. 사무관-서기관 승진에 각각 몇천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다. 거래가 현금으로 은밀하게 이뤄져 수사기관의 추적은 피했지만, 입소문까지 차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능력 없는 인사들이 뒷자리를 차지하거나 아예 승진을 포기한 채 대중 업무를 보는 풍토가 만연하면 행정의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승진 인사에서 돈을 받은 현직 단체장부터 퇴출시켜야 한다.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